

도시락으로 나누는 '동체대비심'

아이들이 굶고 있다.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의 결식학생들도 두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4월 조사결과에 의하면 점심식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중식 지원 대상 학생이 초·중·고등학교 모두 1만여명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특히 고교생의 경우 5배가 증가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도 도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식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2.4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전국적으로 결식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계 곳곳 '결식아동돕기' 운동 나서

실직자 늘어 굶는 학생 2배

부산 '사랑의 도시락본부' 활동 중립학교·사찰등 참여 절실

있으며, 부산 교육청과 사회·민간단체들도 참가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벌이며 부산 각 지역의 절·교회·성당 등을 연계해 지역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것도 추진 중이다.

도시락 보내기 성공의 한 구좌는 2만4천 원, 이는 결식학생 한 명의 1년 급식비용에 해당한다. 결식아동돕기 행사로는 14일 대화 백화점에서 바자회, KBS 부산총국에서 ARS

모금 생활승,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동백섬 한바퀴 도는 경기대회 및 모금운등 등을 벌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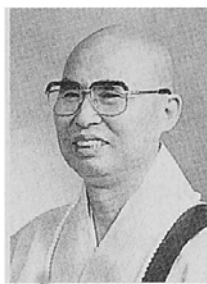
이밖에 서울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4월20일부터 관내 6개학교 44명의 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시락을 무료로 배달하고 있다.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순)은 결식아동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복지관은 마산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26명의 결식아동에게 후원자를 1대1로 연결해 줄 방침이다.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지게 될 결식아동 후원은 오는 2학기부터 실시된다.

경산 백전사회복지관(관장 설송스님)은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두 번 직접 가정방문해 밀린찬 만들기를 해주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한 밀린찬만들기 자원봉사로 15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다.

사랑의 도시락보내기 운동본부와 몇몇 복지관 외에도 교계 곳곳에서 결식학생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동대부중 등 중립학교 및 곳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실시한 자비의 쌀모기 등으로 결식학생 돕기를 실천하고 있는 등 불교계에서도 결식학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강지연 기자



사랑의 도시락보내기본부 대표 정각스님

"결식아동 기성세대 책임"

"실직자의 증가, 청소년 자살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만큼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해요. 종교계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본부" 대표 정각스님(미륵사 주지)은 결식학생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돕기에 나섰다 밝혔다.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는 불교의 동체대비사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IMF 관리체제로 인한 실직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지요."

건강 365일 <22> 연방

연방은 한방에선 연자육(蓮子肉)으로 부른다. 동의보감에 보면 기력을 기르고 오장을 보하며 설사를 다스리고 신(神)을 더하고 심(心)을 편하게 하며 많이 먹으면 항상 기쁘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연꽃의 열매가 바로 연방이다. 화사한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은 어느 곳에서 자라는가. 위생적으로 보면 더럽기 그지없는 썩은 물에서 자란다. 썩은 연꽃에서도 즐거운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다. 이 연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언제 내 연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반문을 해본다.



<연재한의원 원장>

오고 무리하면 심장마비도 올 수 있다.

혈액순환 장애로 고혈압 증상도 발병한다. 심장기능이 떨어지면 목뼈관절 경추에도 영향을 미쳐 경추디스크로 인한 손저림 증상이 온다. 혹은 중풍이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증상

기력보강 마음안정 등에 효과 불안·울화로 생긴 고혈압 치료

사람이란 욕망의 틀 속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고 볶고 다들 찰떡같이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뜻을 펴지 못하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동을 느낀다. 감동으로 마음이 상하면 심장이 열을 받는다.

한의학에서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말한다. 심장에 열이 차면 화병, 울화병 등으로 불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과 초조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숨이 가쁘기도 하다. 맥박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맥이나 심장이 조이는 것 같은 협심증이

이 올 때 척추관절염이나 신경통으로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 심장의 울화를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심장에 울화가 있으면 척추를 말리게 되며 그로 인하여 척추관절에 탄력을 잃어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불안과 감동, 공포심으로 인한 마음의 위축이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심장의 수축작용이 안되면서 각종 질환을 유발시킨다. 이런 후유증으로 동맥경화, 고혈압이 왔을 경우 연방이 특효다.

복용법 1회 8g을 감초 정하지 않은 부정맥이나 심장이 조이는 것 같은 협심증이



◇은석초등학교는 5월18일부터 23일까지 진리의 빛 머금고 있는 석굴암 등 1차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전시회를 가졌다.

'체험학습' 공부 절로 돼요

은석초등교 800여명 동식물생태·시장조사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는 여러 가지 고등들이 신기하긴 해요." 갯벌에 사는 고등'을 주제로 보고서를 낸 권다인양은 자신의 현장 체험이 뿌듯하기만 하다.

은석초등학교(교장 이무열)는 부처님오신날 다음날인 5월4일을 체험학습의 날로 정해 현장학습을 하고 보고서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달에는 5일을 체험학습의 날로 정해 6일·7일 연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는데 전시회는 15일부

터 열 예정이다.

현장체험학습은 8백여명의 전교생이 미리 부모와 의논해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 체험학습을 실시, 사진·수집물 등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차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가운데는 '배봉산 식물생태에 관한 보고서' '여주 도자기 공장과 도자기 축제에 다녀와서' '청량리 시장과 청량리 백화점의 가격 조사'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무열교장선생님은 "다른 친구들의 보고서를 통해 얻는 간접 체험의 효과가 크다"며 "보고서들은 모두 학습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중군등 8명 장관상

참나예술대전 수상자 발표

제3회 참나 청소년 및 지도자 통일·환경·문화·복지·예술대전에서 전체 입상자 350명중 초등부 장관상 김용인군 3명, 중·고등부 장관상에 성업지양 외 3명이 수상자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14일 오후 4시 봉원사에서 열린다.

- 각부 장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통일부 장관상=김용인(영도초등6, 문예), 성업지(선일여중3, 그림), 김철기((주)에맥, 우리웃)
- ◇보건복지부 장관상=박혜원(장호원초등3, 그림), 유민영(인천부중중3, 서예), 김인호(해원불교 미술연구소, 불상목조각)
- ◇문화관광부 장관상=김형탁(흥익초등5, 서예), 서아름(덕원여고3, 문예), 이진형(불교조각



◇환경장관상을 받은 최호중군의 작품.

연구소, 불상목조각)
◇환경부 장관상=이소정(장곡초등6, 문예), 최호중(동대부중1, 그림), 이재순(대한석상조각원, 불상석조각)

'문예' 문화부장관상

납작코 부처님

지난 여름방학때 우리 가족은 경주로 여행을 떠났다. 남산을 오르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에 무료해진 나는 사촌동생 용이를 놀리기 시작했다.

"야! 납작코, 넌 비오는 날만 되면 격정되잖아."

"왜?"

"빗물이 콧 속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야. 하하."

용이는 화가 났는지 말없이 앞서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저 혼자 올라가던 용이가 갑자기 돌아서서 외쳤다.

"저 부처님 코도 납작코네."

...

불상에 나서까지 되어 있었다. 쳐다보고만 있어도 경건한 마음이 드는 불상에 적어놓은 낙서들을 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짓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

그 이튿날을 식공의 솜씨를 벌여 태어나신 돌부처님은 무릇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없이 미소를 건네주신다. 마애석불은 비바람 속에서 영겁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민족의 등불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애석불의 미소에 감명받고 감탄을 자아내겠지...

그렇듯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생각을 했다.

산을 내려오면서, 나뭇가지에 걸려놓은 봉지가 없어진 걸 봤다. 아마 누군가가 쓰레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가버린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며 들고 갔겠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나는 황당해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치우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흐뭇했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인 마애석불좌상을 올려다 보았다. '살아 지 높이는 부처님의 코까지 납작코가 되지 않겠지?'

서아름<서을 덕원여고3>

윤달수의

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윤달 수의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 불교장의 연합회

장례발생 즉시연락

불교식 장례 종합서비스

서울 연방교의사 0361-241-5848
대전 불교교의사 021-732-9618
대구 지장불교교의사 053-654-0055
부산 관음순계봉사센터 051-554-0300
광주 불교교의사 062-226-5161
전주 관음순계봉사센터 053-33-5115
나주 불교교의사 0613-321224
전주 관음순계봉사센터 051-554-0300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한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치료됨

※ 당뇨 통통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지신왕기원(治身旺氣丸)
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이백여년전 당나라 선도승(仙道醫術)의 의성(醫聖) 주진형의 놀라운 비방약인 기적의 치신왕기원(治身旺氣丸)은 사향·호골(虎骨)·인삼·박하수오·적화수오·원방통 외 30여종의 약재로 만들었으며,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장육부의 치료, 중풍·근육의 모든 통증 및 마비증·당뇨병·소화불량·심장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하며, 복용할수록 정수(精水)가 풍부하게 생겨서 왕성한 정력이 솟아남으로 회춘(回春)이 되고 피부도 윤백해진다.

■ 진 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053) 628-9145 (053) 655-3027

대구여래한방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달마그림, 龍자그림 특별보시

정말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지문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 (홍신도 가능)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02)242-0331, 242-0255 (02)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은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硏究會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